

총평: 이번 군무원 시험 7급은 문학과 어문규정의 비중이 높았습니다. 그래서 출제 유형을 골고루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 12번 14번 19번 22번 문제에서 오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문제들에서 맞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고득점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전체적으로 76~84점대 수험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시험입니다.
빠르게 해설을 작성하다보니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1. 정답 : ④

한글 맞춤법 44항을 보면, ‘만’ 단위로 띄어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또한 단위의 경우, ‘아라비아 숫자 + 한글’인 경우는 붙여쓰지만 ‘한글 + 한글’인 경우에는 띄어 적는다. 따라서, 올바른 표기는 ‘십이억 오십육만 개’이다.

2. 정답 : ③

‘웃어른’이 표준어이다. 《표준어》 제12 항에서 ‘위-아래’의 대립이 있을 때는 명사 ‘위’에 맞추어 ‘윗-’으로 통일하고 ‘위-아래’의 대립이 없을 때는 ‘웃-’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.

3. 정답 : ③

상위 개념(유개념)에서 하위 개념(종개념)으로 나누어 가는 것이 ‘구분’이고, 그 반대가 ‘분류’이다. 제시된 글은 ‘알타이어’라는 상위개념을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가고 있으므로 ‘구분’으로 볼 수 있다.

4. 정답 : ②

기본적인 ‘시 해석력’을 묻고 있다. 모든 시를 다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르는 시를 만나더라도 기본적인 해석은 할 수 있어야 한다.

① 자신이 살아온 여정을 ‘허구적 상상력’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맞다. 그러나 ‘극복하고 있는’ 것이 아니라, ‘극복하고자 하는 의지’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
② ‘없다’, ‘모른다’, ‘싫다’와 같은 단어를 반복하며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.

③ 화자의 옛 경험을 돌아보는 것은 맞다. 그러나 ‘허구적 상상력’을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, ‘사실적 묘사’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.

④ 화자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‘과거처럼 다시 힘차게 걷고 싶다’고 말하고 있다.

5. 정답 : ④

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글들이다.

한용운, 김택영, 위안스카이, 쑨원 등이 활동했던 시기는 1900년대 초반이다. 또한 이토가 죄인이라는 표현, 나라 원수를 죽였다는 표현 등을 고려했을 때 ‘안중근 의사’를 추모하는 글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

6. 정답 : ②

관동별곡의 한 부분이다. ‘고신거국에 백발도 하도할샤’라는 표현은 ‘임금 곁은 떠나는 외로

운 신하가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'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, '삼각산 제일봉'은 임금이 있는 곳을 뜻한다. 따라서, 한양을 떠나며 느끼는 '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충정'이 화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

7. 정답 : ①

군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기본적인 고전시가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보여주는 문제이다. 사이인곡은 연군지정을 노래한 작품이고, 도산십이곡은 자연을 학문하는 공간으로 인식한다. 관동별곡은 자연에서의 흥취가 드러나는 작품이 맞지만 자연 속에서 살면서 쓴 것이 아니라 관동 관찰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을 유람하며 쓴 작품이다.

8. 정답 : ③

'너'를 뜻하는 시어와 '나'를 뜻하는 시어로 구분하면 쉽게 풀 수 있다. '아닌 밤 들개바람'은 '나의 울음'을 뜻하고, 나머지 시어들은 '너'를 비유한 표현들이다.

9. 정답 : ④

군무원 시험에서는 '외래어 표기'와 '로마자 표기'를 자주 묻는다. 기본적으로 헛갈리는 외래어 표기들은 암기하고 있어야 한다.

① 트로트가 맞는 표기이다. 트롯이라고 적는다면 말의 걸음걸이를 뜻하는 음성상징어가 된다.

② 강세가 있는 경우 [con-]은 '컨'이 아니라 '콘'으로 적어야 한다. 따라서 콘퍼런스가 맞는 표기이다.

③ 글라스가 맞는 표기이다.

④ 설루션이 맞는 표기이다.

10. 정답 : ④

'하늘 보고 손가락질한다'라는 속담은 상대가 되지도 아니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꿈쩍도 아니 할 대상에게 무모하게 덤비는 것을 뜻한다.

11. 정답 : ②

'완화하는 데에 효과를 보았다'라고 바꿀 수 있으므로 '데'는 의존명사로 볼 수 있다. 이는 띄어써야 한다.

12. 정답 ①

빚먹다는 '물건을 벨 때 칼이나 톱이 먹줄대로 나가지 아니하고 비뚤어지게 잘못 들어가다.'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.

13. 정답 : ①

미괄식으로 쓰여진 글이다. 박목월 시인의 시 세계를 통해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쉽게 풀 수 있었다.

14. 정답 : ①

센 정도를 뜻하는 ‘강도’는 強度이다.

15. 정답 : ②

4번 문항과 같이 기본적인 시 해석력을 묻고 있다. ‘고매한 정신, 끈은 소리, 물방울’ 등은 폭포의 긍정적 속성과 연결되는 시어이며, ‘설 사이’는 나타, 안정과 같이 폭포가 지양하는 부정적 속성의 시어로 볼 수 있다.

16. 정답 : ③

後生可畏(후생가외)라는 사자성어는 젊은 후학을 두려워할 만하다.’는 뜻으로, 후진이 선배보다 젊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넘쳐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될 수 있기에 후진을 존중하라는 말로 쓰인다.

17. 정답 : ④

[공편넉]이 맞는 발음이다.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례로 어문규정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이다.

18. 정답 : ③

Macheollyeong이 맞는 표기이다.

- ① 가평군 - Gapyeong-gun
- ② 갈매봉 - Galmaebong
- ④ 백령도 - Baengnyeongdo

19. 정답 : ②

‘주말하다’는 ‘떡을 문힌 붓으로 글자 따위를 지우다’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. 즉, 붉은 선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지웠다고 해야 한다.

20. 정답 : ①

제시된 작품은 ‘고려가요’에 속하는 ‘동동’이다. 국가의 번영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임을 송축하고, 또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내용이다.

21. 정답 : ②

‘엄마의 말뚝’은 아들을 잃은 엄마의 아픔이 가슴 깊이 박혀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.

22. 정답 : ②

모럴리스트는 인간성과 인간이 살아가는 법을 탐구한 문필가를 이르는 말이다. 문맥상 ‘리얼리스트’가 오는 것이 맞다.

23. 정답 : ④

효과의 경우 [효 : 과/효 : 파]가 모두 표준발음이다. ‘홀대’의 경우 [홀때]가 표준발음이다.

24. 정답 : ③

(마)-(다)-(나)-(가)-(라)가 맞는 순서이다.

(라)의 경우, '앞서 언급한 나이 외에도'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(마) 앞으로는 배치될 수 없다. (나)의 경우 '그래서'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었다. 즉, '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위계부터 측정하게 되는' 이유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. 그러므로 (다)-(나)의 순이 적합하다.

25. 정답 : ①

② 퍼레지더니가 맞는 표기이다.

④ 잔다랗다가 맞는 표기이다.

확실한 실력!

**국어
새로운 기준**



국어 **신한중**

대장부 군무원
국어 신한중입니다

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
육군 중위 전역
현) 군무원 대장부 국어 강사
현) 대치 이강학원 국어 강사
현) 강남대성마이맥, 강남하이퍼 국어강사
현) 육사 / 경찰대 국어 대치동 1타 강사
현) 스카이에듀 국어 강사